청와대 비서관이 엮은 '역사의 기록'

중화학공업에 박정희의 혼이 살아 있다

김광모 지음

리더의 비전과 철학을 밝히는 중화학 담당 비서관의 증언

중화학공업이란 전통산업을 무너뜨리면 나라가 망한다. 중화학공업 기반 위에 창조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의 경제위기가 난국임을 절감하고 절치부심하는 각오로 해결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계는 정쟁으로 소모전에 힘을 쓰지 말 것이며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정책은 뒤로 미루자. 노동계는 분에 넘치는 노동쟁의를 중지해야 한다. 경제난국 해결의 주동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와 공무원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박정희 식 국민총화에 의한 난국해결의 방법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기파랑